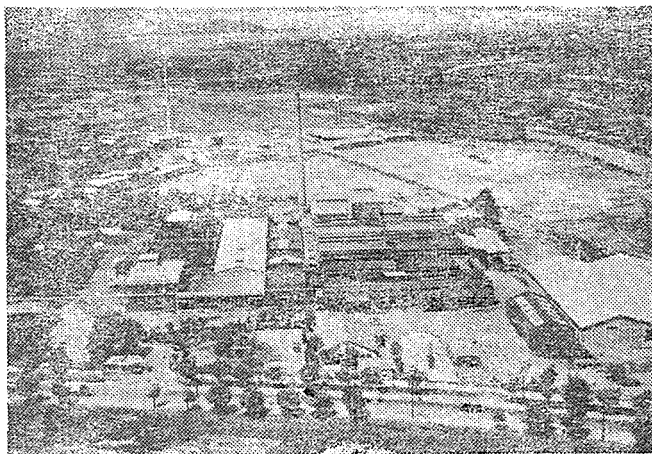


韓國타이어製造株式會社



京仁街道를 달리느라던 永登浦區 文來洞을 지나 다리 건너 오른쪽에 傳統을 자랑하는 듯이 의적이 자리잡은 工場建物을 中心으로 新築建物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이곳이 바로 韓國타이어 製造株式會社의 本社 및 工場이다. 韓國타이어 製造株式會社는 1941年 5月 朝鮮타이어 工業株式會社로 創立되어 日産 50餘本の 日本軍需用 Tire와 Tube를 生産하던 이 會社는 1945年 8月 15日 解放과 同時에 一時移動이 中止되었다가 同年 11月 2日 商工部 管理로서 日産 250餘本の 自動車用 Tire 및 Tube와 自轉車用 Tire 및 Tube, 工業用박킹, Foot ball, Tennis ball 구두창 등 各種 고무製品의 生産과 Tire의 再生을 하여왔다.

그러나 逆境을 무릅쓰고 發展을 거듭하던 이 會社에도 뜻하지 않은 不運이 닥쳐와 1950年 6月 25日의 6·25事變으로 因해 解散되고 모든 建物과 機械施設은 無慘하게도 破壞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58年 5월에야 비로소 復舊 作業이 開始되어 韓國타이어 製造株式會社로 改稱하고 同年 10월부터 日産 300餘本の 自動車用 Tire 및 Tube와 自轉車用 Tire 및 Tube의 生産과 Tire의 再

生을 始作하였다.

1967年 8月 銀行管理의 解除에 따라 元容奭 社長을 비롯한 새로운 經營陣을 맞이한 이 會社는 品質이 좋은 製品을 生産하여 顧客에게 좋은 製品을 提供하고 生産을 增加하여 顧客의 必要에 充足시키자는 標題 아래 高度로 發達된 外國의 技術, 管理方法 및 施設을 導入하기 爲해 많은 技術陣을 海外에 派遣하고 있으며 果敢한 施策으로 新陳代謝에 依한 有能한 人材의 拔擢에 努力하고 있고 1971年 末까지 完全 自動化를 目標로 邁進中에 있다. 또한 營業部의 市內(乙支路 3街) 移轉은 좀더 顧客들의 便益을 圖謀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고 今番 9月 1日을 기해 大幅의인 機構改編에 依하여 強力한 技術開發 및 品質管理補強과 全社員 各者의 創意力을 充分히 發揮하고 課長中心制에 依한 業務의 迅速推進을 爲하여 매우 適合한 機構가 되었다.

더욱이 1969年 9월을 기해 自轉車用 Tire 및 Tube의 生産을 廢棄한 것도 多品種 生産에의 分散을 單一製品에 注力하고자 하는 經營合理化의 一大 英斷이며, 오늘도 全從業員은 過去의 傳統보다는 未來想을 그리며 奮鬥努力 하는데 믿음직스러우며 반드시 唯一無二한 企業體로서 君臨 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을 確信한다.